균형이 깨진다면 곧바로 암흑의 시대가 올텐데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3)



삽화 · 김홍인

오묘한 빛깔의 하늘이었다. 연한 보랏빛의 비단을 두른 듯 신비롭기까지 했다. 크리슈나를 태우고 비데하로 향하던 가루다는 날개 짓을 멈추고 구름 위에 살포시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쳐다보던 크리슈나의 매끈한 미간에 미세하게 주름이 잡혔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표정이었다. 그는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나가세나님은 무슨 생각이신 걸까?"

가루다는 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날개를 퍼덕였다. 크리슈나는 그런 가루다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며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반달 모양을 한 녹색 대륙이 보였다. 지금 저 아래 비데하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그는 또 다시 한숨을 쉬었다.

"아직 나의 시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다니. 루드라와 나의 균형이 깨진다면, 곧바로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 전생이 없는 소년과의 만남은 잠시 미뤄두는게 좋겠어. 루드라가 나보다 먼저 새로운 나를 만난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찌될 지 알 수 없으니 말이야. 그러니 가루다야. 방향을 돌려 잠부로 가 보자꾸나. 그 새로운 나는 하필이면 거기에 살고 있거든. 칼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가루다는 다시 금빛 날개를 활짝 폈다. 순식간에 보랏빛 하늘이 눈부실 정도로 밝아졌다. 자신의 옷자락을 정성스레 매만지던 크리슈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과연 어떤 만남이 될까? 기대가 되지, 가루다?"

하늘을 덮은 듯 보이던 보랏빛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무니 역시 보라색 하늘이 바람에 날리듯 펄럭이는 신비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해줘, 영감. 도대체 여긴 어디야? 어떻게 해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난다와 칸타카가 있고, 말썽꾼 데비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너는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럼 아니야? 영감이 날 여기로 데려 왔잖아! 아까부터 왜 자꾸 딴소리야?"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건 내가 맞단다. 하지만 이곳까지 오게 된 의지는 바로 너의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길 오고 싶어 했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내 의지가 있다는 소리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네 마음이 내는 소리를 모두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마음이 내는 소리?" "그래, 마음이 내는 소리. 네 마음이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냈던 소리를 떠올려 보려무나. 그럼 네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마음의 소리?' 무니는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또 다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는 머리까지 아파왔다. 무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는 말거라. 분명 생각이 날 테니."

노인은 괴로워하는 무니를 위로하듯 말했다.

"지금은 이 장면이나 눈 속에 잘 담아두려무나. 저렇게 신비로운 빛깔의 하늘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펄럭이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냐?"

무니는 잡고 있던 노인의 손을 그제야 놓았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알려 줘.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기?"라고 되묻자,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말이다. 가장 처음의 시간이란다."

"가장 처음의 시간?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시간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시간, 서 있는 이곳도 시간. 우리는 지금 시간에 찍힌 하나의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곳도 아니야. 그런데 어째서 여기가 시간이라는 거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은 가장 처음의 시간이라고 말이야. 마치 바다와 강의 출발점과도 같은 곳이지. 시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앞으로 또 앞으로 흘러갈 테니 말이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무니는 갑자기 머리가 화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그건 분명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이었어. 내가 암흑 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아직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시간의 시작, 그리고 세상의 시작…."

무니는 낮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그런 무니를 여전히 인자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 어떠냐? 이제 이곳에도 흥미가 생기지?"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도 역시 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 냈던 소리를 말이야."

"그렇단다. 그 소리를 떠올린다면 지금 이 장면들의 이유를 알게 되지."

"그럼 그건 세상의 시작과 관련 있는 소리겠네? 오래 전에 유리 영감이 말해줬어. 시작은 곧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건 다른 세계의 끝이기도 한 건가."

무니는 유리 영감이 예전에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로지 마지막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때 무니는 난다와 함께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 앉아있었다. 조그만 창문 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문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면 유리 영감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이 세계의 탄생에서부터 종말까지, 그 과정을 쉽게 상상할 수는 없겠지. 인간의 짧은 생에 비한다면, 그것은 영원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말이야. 그러니 세계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인가에 찾아올 끝을 상상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란다. 생각해 보렴. 유한한 인간이 그 영원과도 같은 세월을 알 수 있으려면, 우선 윤회의 바퀴 가 쉼 없이 굴러가는 동안 그는 모든 기억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하겠지. 다음으로는 그 바퀴가 종말의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굴러가기만을 바라야 할 테고 말이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현자 리시에게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단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무니와 난다는 화덕에서 타다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밤을 바라보며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래 전, 한 마을에 지혜로운 자가 살고 있었단다. 그의 얼굴빛은 상아처럼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동자는 검고 깊었지. 반듯하게 이어지던 콧날은 끝에서 살짝 뭉툭해졌고, 수염에 거의 가려진 입술색은 붉었어. 그는 어느 한 부분도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러운 생김새였단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름답기도 했지. 사람들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어.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지혜로운 자를 너무나 존경하여 그와 같이 되겠다는 청년이 있었단다. 청년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산이나 들에서 일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어. 그는 늙은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늘 혼자였으며, 낮과 밤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골몰해 있기를 즐겼지.

어느 날, 지혜로운 자가 숲 속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문답 시간을 가졌을 때의 일이란다. 늘 큰 나무 뒤에서 몸을 반쯤 가리고 있던 그 청년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지. 그때까지 청년은 그의 질문이 지혜로운 자의 맘에 들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

'현자여, 이 세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현자는 자신에게 질문한 청년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어. 마을 사람들 역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청년에게 시선을 모았지.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이군. 파종을 할 때도, 추수를 할 때에도, 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룰 때에도 말이야. 자네는 이 세계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 왜 알고 싶은가?'

그러자 청년이 말했지. '네. 저는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두는 일이나,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현자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 '흥미롭군. 자네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 같아. 말해보게. 자네는 슬프지 않은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혹은 행복을 느끼지 않는가?' 청년은 대답했지. '물론 저도 때로는 슬픔을 느낍니다. 무시로 찾아오는 고통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행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라고 말이야."

난다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현자는 뭐라고 답했나요?"

"글쎄.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

유리 영감은 온통 밤에만 정신을 쏟고 있던 무니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